



김향화 전진통선 대표, 장학금 500만원 기탁

군산시 소재 전진통선 김향화 대표는 지난 16일 부안군 균농인재육성재단을 방문하여 미래 인재육성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김향화 대표는 작년부터 연이은 후원으로 총 1천만원을 기탁했다.

김향화 대표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후원을 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권익현 부안군 균농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사업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는데 이렇게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뜻깊은 후원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부해 주신 장학금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잘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진통선은 위도지역에 생활필수품 해상운송 및 위험에너지 운송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시,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남원시는 지난 15일 전라북도에서 주관한 ‘2022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수해복구에서 발생되는 준설토 매각으로 세외수입증대’라는 주제로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2020년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남원시가 대내적인 복구과정에서 발생한 대량의 준설토를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속히 매각, 예산절감 및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이중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원시는 이번 대회 최우수상 수상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지방재정 세외수입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남원시 김종선 재정과장은 “앞으로도 시의 주요 자주재원 중 하나인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세원 발굴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군일자리센터-진안군이장단협의회, 업무협약

진안군일자리센터(센터장 최영규)와 진안군이장단협의회(회장 전옥기)는 19일 진안군일자리센터에서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두 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취업에 대한 정보 제공과 업무지원을 합으로써 고용률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협의 사항은 △구인·구직의 일자리 자료 및 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 △구직요청에 의한 공고대행 및 알선에 관한 사항, △일자리 협력망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일자리 창출과 홍보에 관한 사항, △일자리에 관하여 서로 협의한 사항 등으로 두 기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영규 센터장은 “아프리카 격언 중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리는 말처럼 이번 상호협력을 지역 주민들의 구인·구직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문화 소통 축제’ 열려

정읍시청년지원센터 청정지대, 청년 기획·운영 다양한 먹거리·즐길거리·볼거리 제공

정읍시청년지원센터 청정지대가 지난 17일 제 3회 청년의 날을 맞아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에서 ‘2022 청년문화 소통 축제’를 진행했다.

‘2022 청년문화 소통축제’는 지난 4월 축제기획단을 모집하여 5개월간 기획, 모집, 운영까지 모두 정읍시 청년들이 준비하고 진행한 축제다.

이날 축제는 ‘지금 청년은 000이다’라는 슬로건으로 팬데믹에 치친 정을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푸드존, 플레이존, 힐링존, 청년지존으로 운영해 청년들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 휴식, 공연을 제공했다.

또한 청년들의 관심사를 담은 MBTI 성격유형 검사와 스트레스 검사, 퍼스널컬러 진단 등 청년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축제에 참여한 한 청년은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해 즐기고 놀기만 하는 축제가 아닌 청년들이 자신을 찾고 자기 성향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청년들이 서로 어울리고 소통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활력이 느껴졌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웃음과 에너지를 잊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낌 없이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 청년지원센터 청정지대는 ‘청년이 성장하면 지역의 미래가 성장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읍살이를 위해 △예비 청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 △청년축제 △청년 강사 발굴 △문화·여가 클래스 허투파연구소 △취업역량 강화교육 △청년 정책위원회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소방서,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 전개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지난 16일, 재난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과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활동에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소방공무원 10명, 의용소방대원 10명이 관계자 주도의 소방·전기·가스 자율 안전점검을 유도하기 위한 ‘안전하기 좋은 날’ 캠페인을 병행 추진했다.

주요내용은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방송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물품 배부 △점포 상인 화재예방 자율 안전점검 실시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국가공간정보발전’ 유공 국토부 장관상

김제시는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한 2022년 디지털 지적의 날 행사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국가공간정보발전’에 기여하여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제시는 2013년부터 시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불부합지 70,209필지 중 18,102필지의 새로운 경계를 확정했다.

또한 주민설명회와 현장설명회를 통해 토지소유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이웃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형화하여 토지가치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2021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순창군, 간부공무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순창군이 19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 38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매년 반나이하는 필수 교육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간부공무원(5급이상) 대상 별도교육이 2021년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실시됐다. 조직문화 속에 내재된 성차별적 관행과 인식을 변화시키고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교육을 진행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숙진 강사는 관리자의 인식개선을 통한 성희롱·성폭력 예방방법에 대해 설명했으며, 리더로서 가져야 할 성인지 감수성을 등에 대해 강연했다.

특히 “기존세대와 다른 MZ세대의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하며 조직 내 갈등을 해소하고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간부공무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성평등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남녀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간부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수평적인 조



직문화와 서로 배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순창군은 매년 전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김제시, 어린이 사고 예방 교통안전캠페인 추진

김제시는 19일 학생들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수칙 준수를 홍보하기 위해 김제동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민·관·경 합동으로 교통안전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제한속도 준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들이 가져야 할 교통안전수칙을 홍보하자는 취지로 추진했다.

이날 캠페인은 김제시 경제복지국장, 교통행정과장 및 직원들을 비롯해 김제경찰서, 김제교육지원청, 김제모범운전자회, 김제녹색어머니회 등 35여명이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참여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경찰서, 치안성과 보고회 개최

정읍경찰서(서장 홍동석)는 19일 오전 3층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경찰서장, 각 과장, 계·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9월 정읍서 치안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경찰의 주요 추진 정책으로 설계된 2022년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관서성과 관리현황 및 각 기능별 추진 성과를 분석·점검하였고, 남은 기간 미비한 점을 보완해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접촉 민원인을 대상으로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민원 처리·사건절차 등을 자체하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는 등 치안고객민족도 향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속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